

인도차이나 반도 '천년의 이야기'

인도·중국 고대문화권 교류지역
캄보디아-베트남 연대

인도와 중국 고대문화권의 교류지이자 동서문명의 통로인 인도차이나 반도의 캄보디아와 베트남. 광주일보는 2015년 문을 여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 무엇을 담아야 진정한 '아시아의 문화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그 출발로 광주일보는 지난해 창사 60주년을 맞아 아시아 각국의 이야기를 좇는 대하 기획시리즈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지난 1년간 우수베키스탄을 출발해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전설, 민담 등을 발굴한 광주일보는 창사 61주년 '회갑의 해'를 맞아 인도차이나 반도의 캄보디아와 베트남으로 떠난다. 인도차이나 반도는 인도와 중국 2대 고문화권에 속한다. 두 문화의 교류지일 뿐만 아니라 동서문명의 교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천년을 건너도 눈부신 캄보디아 크메르 문화, 그리고 한국과도 너무나 닮은 베트남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으로부터 '100대 아시아 스토리 자원발굴'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해온 방현석 중앙대 교수는 "사양 서사 연구자들은 이미 콘텐트의 한계를 드러낸 서양의 스토리에서 눈을 돌려 아시아에 주목하고 있다"며 "아시아의 방대한 이야기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통하는 콘텐츠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앙코르(Angkor) 유적은 크메르 문화를 대표한다. 13세기 말 중국 무역사절단인 앙코르를 '아시아에서 가장 장엄한 수도'로 기록했다. 역사의 흔적은 세상에서 가장 치열했던 18일간의 '크루셰트라(Kurukshetra) 전투', '우유 바다 휘젓기', '크메르와 캄보디아의 전설' 등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숨어있다. 베트남은 북부 홍강 델타에서 시작됐다. 10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중국의 지배에 놓인다. 베트남은 이 같은 역사 속에 한자문화권이 형성되면서 우리와 역사, 문화적으로 많은 부분이 닮았다. 베트남 단군신화이자 주몽신화와 같은 난생신화 '비엠흑 건국신화',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스토리와 닮은 '미 짜우와 종 무이의 사랑' 그리고 현재까지도 문명을 거부한 채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하정성 소수민족의 슬픈 사랑이야기 등이 독자를 찾아간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베트남 하노이에서 500km 떨어진 하정성 산간마을을 돌면서 만난 농작물 지어(10·자미르)7) 남매가 딸건을 구해 집으로 항하고 있다. 동반지역에는 농·잠·찌·피·피·찌 등 20여 소수민족들이 생활하고 있다. /베트남 하정성=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우유바다' 불멸의 약 구하러 손잡고...배반하고...신과 악마가 보여준 욕망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 (29)
4부 캄보디아 편

■ 힌두교 창세신화 '우유바다 휘젓기'

씨엠펙 = 김경민 기자 kki@kwangju.co.kr

캄보디아 씨엠펙(Siem Reap) 중심부에서 앙코르와트(Angkor wat) 입구까지는 차량으로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씨엠펙 어디에서도 앙코르 유적보다 높은 건물은 보이지 않는다. 해자(해자·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이나 사원 주위에 둘러 쓴 못)가 사원 주위를 감싸고 있다고 해서 '물 위에 뜬 사원'이라고 불리는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를 보기 위해 찾아온 이들은 대부분 사원 외벽을 지나면서 절음을 멈추고, 웅장하고 정교했다. 태양이 떠오르는 곳, 동쪽을 향해 걸어 갈수록 사원은 더욱 장엄하게 다가왔다. 앙코르와트는 모두 3개 층으로 건축됐다. 광주일보 취재진을 안내한 캄보디아인 가이드는 "앙코르와트는 가장 위쪽을 1층이라고 하며, 1층은 신계, 2층은 인간계, 3층은 미물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크루셰트라(Kurukshetra) 전투, 라마야나의 주요 장면들, 앙코르와트를 만든 수리아바르만(Suryavarman) 2세의 전승, 천국과 지옥 등 4개의 벽화를 지나 '노'자로 휘이는 1층 동쪽면 남쪽 회랑에서는 힌두교 창세신화인 '우유 바다 휘젓기'(Churning the Ocean of Milk) 부조를 만나게 된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절음을 멈추고 스토리를 읽어 내려가는 벽화이기도 하다. 이 벽화는 크메르 문명과 앙코르와트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크

힌두교 숭배한 크메르 왕 바르만 2세
앙코르와트 유적 곳곳에 신화 부조
천국과 지옥·전투장면 등 전설 가득

메르 문명의 독자적인 창세신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부조는 높이 2m, 길이 50m, 상·중·하 3단으로 나뉘져 있으며, 단일 부조로는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작품으로 꼽힌다. 한 편의 길고 긴 신화가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표현되어 부조는 마치 대하를 읽는 것만으로도 감탄하게 된다. 정교하게 새겨진 부조의 모티브를 하나씩 살펴볼 때 전설을 되새기게끔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벽화는 크메르 문화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서사시가 세계적이었다. 이야기는 이렇다. 신생 신 데바(Deva)의 왕인드라(Indra)가 시바신의 화신인 두르바사(Durvasa)에게 선물을 받은 스리(Sri)영은이 갖은 꽃다발을 떨어뜨리고 만다. 그 꽃다발은 두르바사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인드라가 꽃다발을 떨어뜨린 사실을 안 두르바사는 저주를 퍼붓는다. "이제부터 모든 데바들은 힘을 잃을 것이다." 결국 데바들은 힘을 잃었고, 급기가 약한 신인 아수라(Asura) 군단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면서 물살 위기에 처한다. 데바들은 힌두교 3대 신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 비슈누(Vishnu)에게 방법을 듣게 된다.



앙코르와트는 12세기 수리아바르만 2세가 즉위하면서 만들기 시작해 30년 넘어 완공한 사원이다. 다른 사원들과 달리 영혼이 출몰하는 서쪽을 향해 오직 하나의 문이 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은 헬기에서 촬영한 밀림 속 앙코르와트. /캄보디아 씨엠펙=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천년 간 생명의 바다인 우유 바다를 휘저어라. 천년이 흐른 뒤 우유 바다에서 나오는 영생의 약 '아미타(Amita)'를 먹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데바들의 힘만으로는 우유 바다를 휘젓기에 역부족이었다. 아수라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수라와 데바는 우생 신들이 사는 만다라(Mandara) 산을 뽑아 회전축으로 삼았다. "가장 늦게 눈을 뜨는 아수라라고 결혼하겠습니다." 결국 죄에 넘어간 아수라들은 알라타가 된 호리병을 빼앗긴다. 데바들은 불멸의 알라타를 나눠 마셨고, 기력을 회복해 아수라들과 싸움에서 승리한다. 벽화 하단에는 생명의 근원인 '우유 바다'에서 살고 있는 각종 생명체와 비슈누의 화신 거북이, 중간 부분에는 머리가 5개 달린 뱀 나가와 양쪽으로 나가는 불꽃과 흡사 줄다리기 하는 듯한 선한 신과 악한 신, 그리고 나가의 허리띠에 휘감긴 만다라 산 등이 새겨져 있다. 불거진 눈에 투구를 쓴 전사 모습의 아수라와 원추형 모자에 크메르인

생한다. 천년의 시간이 흐르고 우유 바다에서 마침내 데바들의 의사 단반타리(Dhanvantari)가 불로장생의 영약 알라타를 가지고 나타난다. 데바들의 기쁨도 잠시, 아수라가 알라타를 빼앗아 가버린다. 비슈누는 괴를 내었다. 질세 미모를 지닌 여인으로 변해 아수라들을 유혹하기 시작했다. "가장 늦게 눈을 뜨는 아수라라고 결혼하겠습니다." 결국 죄에 넘어간 아수라들은 알라타가 된 호리병을 빼앗긴다. 데바들은 불멸의 알라타를 나눠 마셨고, 기력을 회복해 아수라들과 싸움에서 승리한다. 벽화 하단에는 생명의 근원인 '우유 바다'에서 살고 있는 각종 생명체와 비슈누의 화신 거북이, 중간 부분에는 머리가 5개 달린 뱀 나가와 양쪽으로 나가는 불꽃과 흡사 줄다리기 하는 듯한 선한 신과 악한 신, 그리고 나가의 허리띠에 휘감긴 만다라 산 등이 새겨져 있다. 불거진 눈에 투구를 쓴 전사 모습의 아수라와 원추형 모자에 크메르인

의 눈을 한 데바의 모습이 상반된다. 데바는 크메르인, 아수라는 크메르 제국을 침략했던 침족을 상징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상단에는 신들이 우유 바다를 휘저어 탄생시킨 천상의 여신 암사라를 이 다양한 형태로 반복한다. 꼬리 부분에서는 상기전 표정으로 데바들을 응원하는 원숭이 한우반의 모습도 보인다. 태양이 사원을 지나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빛의 방향이 바뀌어 따라다 양한 모습으로 변하는 벽화의 모습도 인상적이다. 사암으로 만들어 예전에는 은색으로 반복했다는 벽면은 세월이 흐르면서 검게 변해 벽화의 윤곽을 더욱 여실하게 보여준다. 왜 인도의 힌두교 창세신화가 캄보디아에 있을까? '도시사원'이라는 뜻의 앙코르와트는 힌두교를 숭배한 수리아바르만 2세가 12세기 중엽에 20만 명의 사람과 4만 마리의 코끼리를 동원해 37년에 걸쳐 완성한 사원이다. 수리아바르만 2세는 크메르 왕 중 유일하게 비슈누 신을 신봉했다. 그리고 크메르 문명의 원류인 힌두 신화들을 벽면 곳곳에 그려 넣었다.

신이 되고 싶었던 수리아바르만이 사원 입구를 죽음을 의미하는 서쪽으로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여백면 죽어서도 신으로 남고 싶었던 그의 마음의 표현이리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관리기관 암사라(APSARA)의 책(44)씨는 "이 신화는 신과 악마도 우리 인간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불사불멸의 욕망을 지닌 존재이며,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시, 배반, 거짓말, 고지질 등 비도덕적 행위들까지 거머잡았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 때문에 캄보디아와 전 세계 사람에게 게 더욱 친감 있게 다가간다"며 "데바와 아수라를 본질적인 선, 악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 보다는 우주를 구성하는 서로 상반되는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앙코르와트 1층 동쪽면 남쪽 회랑에 새겨진 힌두교 창세신화 '우유 바다 휘젓기' 부조.



'우유 바다 휘젓기'에 나오는 신과 악마의 석상이 앙코르 톰으로 들어가는 남문 입구를 지키고 있는 모습.

KRA 한국마사회 행복가득 61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since 1952 회갑의 해

행복가득

365일 즐거운 우리가족 쉼터, KRA Plaza 광주지사

경주가 있는 주말엔 신나는 레저공간으로, 평일엔 배움의 기쁨을 선사하는 문화센터로 - KRA가 가까이서 행복과 즐거움을 채워드립니다

- ※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사회회관 및 문화센터

| 구분 | A형 | B형 | C형 | D형 | E형 |
|----|---------|---------|---------|---------|---------|
| 면적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가격 | 6,000원 | 10,000원 | 14,000원 | 20,000원 | 30,000원 |

※ 지정차석실 운영모델 전면 개편 ※ 2013년 4월 19일(부) 시행

1인일 당일차기 모델에서 6인일~3인일까지 차석수 유량을 달리하여 5개 모델로 새롭게 운영

- ▶ 운영모델

광주 KRA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501-080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257

61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since 1952 회갑의 해

가족과 함께 하는 서구의 볼거리

서구청 청사 전경

- 벚꽃과 분수가 어울어진 운치후수
- 자연과 함께하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 호남 최대의 전통시장인 양동시장
- 황금들녘과 석양 노을이 비경인 서창 들녘 낙조

서구청 청사 전경